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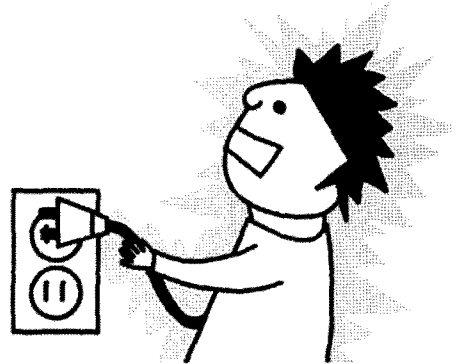


불량전선 시중에 나돌아... 소비자 주의 필요

기술표준원, 13개 업체 15개 전선 판매금지 조치

개요

- 기술표준원은 국제구리 가격의 급등과 업체 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전선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15개 제품을 적발하였음
 - ※ 구리값은 금년초에 비해 약 1.7배 (4,565원/kg ⇒ 7,729원/kg) 상승(런던금속거래소)
 - ※ LS전선 등 6대 대기업이 국내 전선 생산량(약 7조원)의 약 70%를 점유



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

-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30일까지 절연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관련 96업체 107개 제품에 대하여 실시 하였으며, 그 결과 절연전력케이블 12개 제품, 절연전선 3개 제품 등 15개 제품의 도체저항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전량 수거, 파기토록 하였음
 - ※ 절연전력케이블은 산업용 또는 건축용에 주로 사용, 절연전선은 건축내부배선용 또는 일반 용도로 사용

- 도체저항이 기준 보다 클 경우,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전류의 손실을 초래하며 과부하 등의 경우에 열 발생이 높아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- 한편,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용 전구세트 12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바, 인증받지 않은 전선을 사용하거나 플러그와 전선의 연결부위 결합력이 약하고, 플러그 형상 치수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
- 기술표준원은 품질이 열악한 크리스마스트리용 전구세트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.12.31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할 바 있으며 금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.1.1부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
-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에서 안내 받을 수 있음

